

보도시점 2026. 5. 30.(토) 19:00 배포 2026. 5. 29.(금) 11:00

최호종 천명지킴 생명대사, 단독공연 'LIMBØ'에 자살유가족 초청

- 천명지킴 생명대사인 무용수 최호종, 두번째 단독공연 'LIMBØ'에 자살유가족 초청, 아름다운 움직임의 위로 전달

- 2026 천명지킴 생명대사*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무용수 최호종은 5월 30일(토) 서울 회현동에서 진행된 자신의 두 번째 단독공연인 'LIMBØ'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유족 모임 '자작나무' 소속 '동료지원가' 일부를 초청하였다.
 - *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2026년 연간 자살사망자 1,000명을 줄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'천명지킴 프로젝트'의 핵심 주체중 하나, 효과적인 자살예방 문화 및 인식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한 연예인, 인플루언서 등
- '자작나무'(자살유족 작은희망 나눔으로 푸르익다)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'08년 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자살유족을 위한 자조모임이며,
 - '동료지원가'란 다른 자살유족들에게 정서적 지지, 정보제공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유족 당사자를 가리킨다.
 - 이들은 가족, 친구, 동료 등을 잃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'회복과 상생의 연결고리'이다.
- 한편, 이번 최호종의 'LIMBØ' 공연은 작년 첫 단독공연 '2025 CHOI HOJONG 1st MOVEMOTE 'NOWHERE''를 발전시킨 것으로,
 - 최호종 무용수는 생명대사로서 자살유족 동료지원가 초청을 통해 "자살 유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다.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."라는 생명존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.

□ 이날 공연을 함께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송민섭 본부장은 최호종 무용수의 단독공연을 축하함과 동시에, “천명지킴 생명대사 한분 한분께서 본인의 영역에서 보여주시는 따뜻하고 진심어린 위로와 관심이 우리 국민들이 자살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하고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”고 밝히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주홍민 (044-200-6371)
	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서기관	유승은 (044-200-6390)